

# 복잡심장기형 小兒患者 치료 美 보스톤병원 研修경험적용

## 서울대병원 큰 성과 기대

국내에서는 아직 도경험

수술합병증과 높은 사망률을 보이는 복잡심장기형소아환자들에 대한 치료가 서울대병원에 의해 활발히 이루어질 전망이다.

최근 美 보스톤 소아병원에서 소아심장외과학분야의 연수를 마치고 돌아온 서울의대 흉부외과 金容珍 교수는 이번 연수에서 국내뿐만 아니라 선진외과에서도 외과적 치료에 어떤 방법을 겪고있는 와전교정술이 불가능한 좌심실발육부전증 및 단심방구의 복잡심장기형에 대해 일차적보조수술요법후 2차적인 양방항상산대정맥-폐동맥단락술요법의 개별정형에 많은 도움을 얻었다고 밝혔다.

金교수는 특히 초저온순환정지법을 이용하여 복잡한 심기형의 수술치료에 정화선별 기하고 동시에 술후 그 폐동맥안발작등의 치료와 주요장기의 조직부종을 감소키위해 체외순환기법을 향상시키고 적절한 혈관화장제및 체온에 따른 마취량조절등도 신생아및조기 유아의 합병증및 수술사망을 감소시킬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金교수는 이번 연수경험을 바탕으로 서울대병원의 경우 국내에서도 아직 미흡한 좌심실발육부전증의 수술치료와 단심증및 기타복잡기형에서의 천공성판타수술의 적용 확대로 이러한 질환환자의 수술치료가 가능할 뿐이겠다고 밝혔다.